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정 고 운 조 민 수 박 선 응[†]

고려대학교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우울증의 발병에 있어 인지적 왜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현실에 비해 부정적으로 왜곡된 지각을 갖는 것이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이론에 기초해 본 연구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메타지각이란 대인지각의 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메타지각을 실제 친구들의 지각과 비교함으로써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왜곡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인 참여자들과 미국인 참여자들 모두 친구들이 자신들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응답하고, 자기보고식 우울 척도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의 친구들은 동일한 성격 척도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 간의 관계에서 문화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떤 문화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친구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자신의 성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우울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있어 메타지각이 갖는 이론적, 실용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우울, 메타지각, 왜곡된 지각, 인지적 접근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메타지각(meta-perception)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는 통찰력(meta-insight)을 가지고 있다(Carlson, Vazire, & Furr, 2011).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 믿는다. 우울에 대해 인지적인 접근을 시도한 Beck(1976)에 따르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왜곡된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해지기 쉽다. 본 연구는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과 우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과 메타지각

우울증에 대한 여러 접근 중 인지적 접근은 개인의 왜곡된 인지, 특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우울증의 발병과 증상의 유지에 관계가 있다는 입장으로(Beck, 1967, 1976),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은정, 권정혜, 1998; Beck, 1991; Ernst, 1985). 인지적 접근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Aaron Beck의 인지적 왜곡 모델(cognitive distortion model; Beck, 1967, 1976)에 따르면 우울증은 자기 자신, 주변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구성된 인지 삼제(cognitive triad)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기 자신, 주변 상황,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질수록 우울하다는 것이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이러한 인지적 왜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울증 환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환자의 부정적인 도

식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 있다(Beck, 1967).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우울이 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중립적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다(Bellew & Hill, 1990; Dunbar & Lishman, 1984; Gotlib & Cane, 1987; Gotlib & McCann, 1984). 이러한 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지 요소 중 대인지각, 특히 메타지각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인지각은 자기 자신 및 타인의 인상에 대한 지각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정태연, 2006; Kenny, 1994). 자기지각(self-perception)은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각을 말하고, 타인지각(other-perception)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메타지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다. 이러한 대인지각은 현재 자신의 대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미래에 사람들과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정태연, 2006; 정태연, 김종대, 2004; Carlson et al., 2011).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기지각과 메타지각은 얼핏 유사해 보이나, 메타지각은 ‘나’를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지각과 메타지각은 실질적으로 서로 구분 가능한 지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지각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Vazire, & Furr, 2010, 2011; Kenny & DePaulo, 1993; Oltmanns, Gleason, Klonsky, & Turkheimer, 2005). 특히, Carlson 등(2010)은 참여자들의 메타지각과 실제 타인의 지각을 비교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메타지각을 친구, 가족 등 대상별로 측정하고 실제 그 대상이 참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 또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자기지각과 구분되는 메타지각

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메타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친구, 가족 혹은 연인 등 대상별로 서로 다른 메타지각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우울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자기 지각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Gara et al., 1993; King, Naylor, Sega, Evans, & Shain, 1933;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Woolfolk, Novalany, Gara, Allen, & Polino, 1995). 자기지각과 우울을 다룬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우울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지지하였다. 한 예로, Gara 등(1993)의 연구에서는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우울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더 적게 기술하였다.

자기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메타지각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Siegel & Alloy, 1990; Strack & Coyen, 1983; Strunk & Adler, 2009). 예를 들어, Strunk와 Adler(2009)는 성격을 묘사하는 21개의 긍정적인 형용사(예, 친근한, 적극적인)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배우자)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 지각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참가자의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형용사를 이용해 참가자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였다. 메타지각의 왜곡을 확인하기 위해, 각 형용사별로 참가자의 메타지각에서 주변 사람의 지각을 뺀 후 이를 평균 내었다. 이때 낮은 점수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을 가리킨다. 연구 결과, 이 점수와 우울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한 사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메타지각이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인지의 어떤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이를 논박하는 것이 우울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Butler, Chapman, Forman, & Beck, 2006). 자기지각이 부정적인 경우, 실제 자신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지각이 왜곡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메타지각의 경우 타인의 평가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메타지각과 실제 타인의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메타지각이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Carlson et al., 2010, 2011; Christensen, Stein, & Means-Christensen, 2003; Colvin, Block, & Funder, 1995; Oltmanns et al., 2005). 이에 본 연구는 타인의 지각과 메타지각을 측정하여 메타지각의 왜곡을 알아보고,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이 실제로 우울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메타지각의 왜곡과 우울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문항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메타지각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Strunk와 Adler(200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형용사만을 이용하여 메타지각의 왜곡을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중립적이거나(예, 수다스러운) 부정적인(예, 적대적인) 성격 특성에서 우울한 사람들의 메타지각이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성인용 인성 검사(California Adult Q-Sort, CAQ; Block, 2008)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메타지각과 친구들의 참여자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였다. 총 100문항으로 구성된 CAQ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측정

하는 CAQ를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성격 특성의 긍정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얼마나 긍정적인지에 상관 없이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양분법을 통해 성격 특성들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메타지각의 편향성을 확인하였다(Siegel & Alloy, 1990; Strack & Coyen, 1983; Strunk & Adler, 2009).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긍(부)정적인 성격 특성에서의 부정적 왜곡이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머 감각이 있는’이라는 특성과 ‘믿고 의지할 수 있는’이라는 특성의 경우, 모두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특성이지만, 전자가 없어도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후자가 없이는 좋은 대인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서의 부정적 왜곡보다 후자에서의 부정적 왜곡이 우울과 더 큰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성격 특성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9명의 임상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CAQ문항을 이용하여 평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optimally adjusted individual prototype; Block, 2008) 점수를 활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방법 참고).

우울과 (탈)비교문화적 관점

우울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만연하게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발병 원인과 증상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Kleinman, 1977; Tafarodi & Smith, 2001). 개인의 사고방식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는 문화적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Donnelly, 1984), 필연적으로 우울 또한 각각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Tafarodi와 Smith(2001)는 말레이시아와 영국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참여자들은 연인 혹은 부모님과의 불화와 같은 사회적 생활사건이 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경쟁에서 지는 등 개인의 성취와 관련된 생활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Kleinman(1977)은 중국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우울 증상, 즉 신체화(somatization)를 근거로 우울의 발병은 문화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각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화차를 넘어서는 우울의 보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 역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Weissman 등(1996)은 미국, 프랑스, 대만, 한국 등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우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세부적인 면에서 편차가 있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점, 불면증, 에너지의 상실, 자살 생각 등을 동반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우울에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Singer(1975)는 우울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우울과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를 개관하면서 기존에 밝혀진 우울의 문화차는 그 증거가 불분명함을 밝히며, 조작적 정의나 연구 방법에 있어서 협소한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우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인지적 왜곡과 우울 간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문화권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김은정, 권정혜, 1998; Beck, 1967; Chan & Tsoi, 1984; Cole, Martin, Powers, & Truglio, 1996; Försterling & Binser, 2002; Tanaka et al., 2006). 예를 들어, Cole 등(1996)은 우울과 인지적 왜곡 중 어떤 것이 선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의 부정적인 자기지각은 우울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주변 사건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Chan & Tsoi, 1984).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지적 왜곡과 우울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보편성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인지의 한 부분인 메타지각의 왜곡과 우울의 관련성 또한 문화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인과 미국인 참여자들은 친구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응답하고, 자기보고 형식으로 작성된 우울 척도에 답변하였다. 참여자들이 추천한 참여자들의 친구 역시 동일한 문항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성격을 평정하였다(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Vazire, 2006 참조).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과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문화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참여자와 미국인 참여자를 각각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인 참여자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교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연구에 대해 공지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한 뒤,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자신과 친한 친구 두 명을 추천하였다. 참여자의 친구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일주일 이내에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였다. 참여자의 친구들에게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다(Vazire, 2006).

총 146명이 참여하였으나, 두 명의 친구 모두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15명을 제외한 131명(여자 67명, 평균 나이 = 22.39)에 대한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응답한 경우는 86명이며 한 명의 친구만 응답한 경우는 45명이었다.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명의 친구 모두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69, 한 명의 친구만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66, 그리고 두 명의 친구 모두로부터 응답이 없는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63으로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0.17$, $p > .05$.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메타지각의 긍정성 점수(산출 방법은 아래 참조)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 점수는 각각 .49, .42, .5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1.59$, $p > .05$. 이에 따라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인 참여자의 경우, 미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심리학 수업 과제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한 뒤,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자신과 1년 이상 교제한 친한 친구 두 명을 추천하였다. 교제기간의 평균 길이는 5.49년이었 다($SD = 4.57$).

총 90명이 참여하였으나, 두 명의 친구 모두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인 13명을 제외한 77명

(여자 55명, 평균 나이 = 18.85)에 대한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응답한 경우는 50명이며 한 명의 친구만 응답한 경우는 27명이었다.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명의 친구 모두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83, 한 명의 친구만 응답한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80, 그리고 두 명의 친구 모두로부터 응답이 없는 참여자의 우울 점수는 1.73으로 응답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0.21, p > .05$.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메타지각의 긍정성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 점수는 각각 .54, .48, .4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 1.14, p > .05$. 이에 따라 응답한 친구 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특정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묻는 20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1점: 거의 드물게, 4점: 대부분)로 평정하였다. 20문항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은 평균 내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89로 나타났다.

메타지각의 긍정성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성인용 인성 검사(CAQ; Block, 2008) 문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제시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묘사할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에는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

다.

참여자의 성격에 대한 메타지각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optimally adjusted individual prototype)’ 점수를 활용하였다(Block, 2008, p. 131).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 점수란 CAQ문항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평정한 결과이다. 이 전형 점수를 만들기 위해 CAQ의 개발자인 Block은 9명의 임상심리학자들과 정신과전문의들로 하여금 가장 적응적이고 건강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한 뒤, 이 인물의 성격을 CAQ를 이용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전문가들의 평정을 평균 내어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을 구성하였고, 반분신뢰도(Spearman-Brown)는 .97이었다. 높은 점수를 받은 CAQ 문항은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을 가리키며,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리킨다. 중간 점수를 받은 문항은 심리적 건강과 크게 관련이 없다.

메타지각의 긍정성은 참여자가 CAQ를 이용하여 평정한 메타지각 100문항의 점수와 전문가들이 평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의 100문항의 점수 사이의 프로파일 상관관계(profile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Colvin et al., 1995). 예를 들어, 이몽룡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예,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만함)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예, 자아가 연약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함)은 자신과 비슷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고 치자. 이 경우 이몽룡의 100문항에 대한 답변 점수와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 100문항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정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이몽룡의 자기지각이 긍정적임을 가리킨다. 반대로, 만약 성춘향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은 자신과 비슷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면, 둘 사이의

상관계수는 부적으로 나올 것인데 이는 성취향의 자기지각이 부정적임을 가리킨다. 각 참여자의 메타지각에 대해 이와 같은 프로파일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졌다.¹⁾

친구지각의 긍정성

참여자의 친구들이 실제로 참여자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의 친구들이 CAQ 항목에 대해 6점 척도로 참여자의 성격에 대해 평정하였다.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응답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평균 내어 분석하였다(Colvin, 1993; Park & Colvin, 2014). 참여자의 성격에 대한 친구지각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메타지각의 긍정성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파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친구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예,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만함)이 홍길동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예, 자아가 연약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함)은 홍길동과 비슷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고 치자. 이 경우 홍길동의 친구가 홍길동의 성격에 대해 답변한 100문항의 점수와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 100문항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정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홍길동에 대한 친구지각이 긍정적임을 가리킨다. 각 참여자의 친구지각에 대해 이와 같은 프로파일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메타지각과 친구지각의 전체적인 긍(부)정성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각 CAQ 문항에 대한 메타지각의 왜곡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Colvin(2014)이 사용했던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우선, 각 CAQ 문항별로 메타지각

과 친구지각 간의 차이를 자기-준거 잔차법(self-criterion residual method; John & Robins, 1994)을 응용하여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CAQ 문항에 대하여 참여자가 평정한 메타지각을 준거변인으로, 해당 CAQ 문항에 대하여 평정된 친구지각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 회귀분석으로부터 잔차가 계산되는데, 이는 메타지각과 친구지각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적인 잔차는 해당 문항에 대해 참여자의 메타지각이 친구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부적인 잔차는 참여자의 메타지각이 친구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100개의 CAQ 문항에 대해 동일한 절차가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앞서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100개의 문항에 대한 잔차 점수들과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의 전형 100개의 점수들의 프로파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참여자당 하나의 상관계수가 생성되었다. 이때 정적인 상관계수는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에서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보다 높고,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에서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9점)인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만함’에 대해 참여자의 메타지각은 6점, 친구지각은 4점이고,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의 CAQ 문항(1점)인 ‘삶이 자신을 속이고 농락해 왔다고 느낌’에 대해 메타지각은 2점이고 친구지각은 4점 등의 방식으로 답변이 구성되어 있다면 정적인 상관계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정적인 상관계수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에 비해 긍정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부적인 상관계수는 메타지각이 친구지각에 비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어진 상관계수에 -1을 곱하였다. 값이 클수록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1) 통계분석을 위해 각 상관계수는 Fisher의 r -to- z transformation 공식을 이용하여 z 점수로 전환되었다.

결 과

한국인 집단에서 우울 점수의 경우 남성($M = 1.68, SD = 0.49$)과 여성($M = 1.68, SD = 0.4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29) = 0.08, p > .05$. 또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는 참여자 성별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b = -0.15, SE = 0.28, p > .05$. 미국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울 점수의 경우 남성($M = 1.78, SD = 0.52$)과 여성($M = 1.83, SD = 0.5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73) = 0.40, p > .05$.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 또한 참여자 성별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b = -0.77, SE = 0.43, p > .05$. 이에 따라 한국인 집단과 미국인 집단 모두 향후 분석은 참여자 성별 구분 없이 합쳐서 이루어졌다.

우울과 메타지각의 긍정성 및 친구지각의 긍정성의 상관관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인 집단($r = .44$)과 미국인 집단($r = .41$) 모두에서 메타지각의 긍정성과 친구지각의 긍정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친구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참여자들 스스로도 친구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믿

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친구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을지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가리킨다(meta-insight; Carlson et al., 2011). 우울과 메타지각의 긍정성 사이에는 한국인 집단($r = -.42$)과 미국인 집단($r = -.35$)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우울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믿고 있음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친구지각의 긍정성 사이에는 한국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0$)가 나타났다. 즉, 우울한 참여자들의 친구는 참여자들을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미국인 집단에서는 우울 점수와 친구지각의 긍정성 점수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r = -.09$). 후자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의 관계

한국인 집단($r = .32$)과 미국인 집단($r = .34$) 모두에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점수와 참여자의 우울 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1). 이는 친구들이 실제로 평가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수록 우울이 높았음을 가리

표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우울	메타지각의 긍정성	친구지각의 긍정성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평균	표준편차
우울	-	-.35**	-.09	.34**	1.82	0.50
메타지각의 긍정성	-.42***	-	.41***	-.89***	0.52	0.22
친구지각의 긍정성	-.20*	.44***	-	-.18	0.58	0.26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32***	-.87***	-.20*	-	0.00	0.26
평균	1.68	0.47	0.67	0.00	-	-
표준편차	0.44	0.23	0.24	0.26	-	-

주. 대각선 아래는 한국인, 대각선 위는 미국인 집단에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임.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킨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과 우울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점수 사이의 관계에 문화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을 코딩하고(미국인 = -1, 한국인 = +1),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점수를 평균중심화하고, 두 항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든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문화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b = -0.05$, $SE = 0.12$, $p > .05$. 이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가 두 문화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가리키는 결과로, 문화의 조절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두 문화 모두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실제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메타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과 미국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타지각의 긍정성과 친구지각의 긍정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참여자들이 메타지각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는 것으로, 기존 메타지각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arlson et al., 2010, 2011; Kenny & DePaulo, 1993; Oltmanns et al., 2005). 또한 부정적으로 왜곡된 메타지각과 우울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둘 간의 관계에서 문화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문화에 관계없이 메타지각이 부정적으로 왜곡된 사람일수록 더 우울했다.

본 연구는 메타지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지

적 왜곡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메타지각이 부정적으로 왜곡될수록 우울 역시 높음을 밝혔다. 우울과 대인지각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던 대부분의 연구가 자기지각에 관한 것이었음에 비해(Gara et al., 1993; King et al., 1933; Lewinsohn et al., 1980; Woolfolk et al., 1995), 본 연구는 메타지각이라는 인지 변인을 활용하였다. 자기지각의 경우 객관적인 준거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Colvin et al., 1995) 메타지각은 비교적 준거점이 선명하기 때문에 메타지각이 얼마나,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증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는 행동과 인지적 방법이 결합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자동적 사고, 인지적 오류, 역기능적 믿음에 대해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가진다. 현실검증(reality-test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내담자의 인지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Butler et al., 2006; Kovacs & Beck, 1978).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을 메타지각과 같은 구체적인 개념으로 측정하고 실제 타인의 지각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행동치료에서 목표하는 인지적 왜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이 자신의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믿는 경우(자기지각), 이러한 판단이 자신의 실제 성격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부정적으로 왜곡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반면, 친구들이 자신의 사교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메타지각), 직접 친구들이 자신의 사교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소수의 성격 특성에서만 메타지각의 왜곡을 확인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개인의 성격 전반을 포괄

하는 총 100개 항목의 성격 검사를 통해 메타지각의 왜곡을 측정하였다는 것으로, 일부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특징을 가진 전반적인 성격 특성을 사용하여 우울과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다수의 전문가가 평정한 점수를 이용하여 성격 특성의 긍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메타지각의 긍정성과 친구지각의 긍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믿음과 우울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별도의 존재로 여기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도 양자 사이에 동일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문화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우울의 핵심 분모를 밝히는 것은 우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Singer, 197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이 범문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편, 우울과 친구지각의 긍정성 간의 관계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 집단의 경우 우울 점수와 친구지각의 긍정성 점수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미국인 집단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우울에 대한 문화차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결과는 우울 혹은 메타지각에 대한 몇몇 비교 문화 연구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Gundlach, Zivnuska, & Stoner, 2006; Kleinman, 1977; Tafarodi & Smith, 2001). Gundlach 등(2006)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경우 주변 관계와의 조화보다 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지각이 개인의 특성에 적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인 참여자의 경우는 한국인 참여자보다 개인의 우울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적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기 쉽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친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참여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집단 속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집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최인재, 최상진, 2002).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한국인들은 친구가 우울하다는 사실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수 있다. 타인의 지각과 우울 간의 정확한 문화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지적 접근에서는 인지적 왜곡이 우울에 선행한다고 간주하고 있고(Beck, 1967) 본 연구 결과 역시 그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울이 인지적 왜곡에 선행한다는 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Cole, Martin, Peeke, Seroczynski, & Fier, 1999; Cole, Martin, Peeke, Seroczynski, & Hoffman, 1998; McGrath & Reppetti, 2002),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둘 사이의 정확한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이 우울의 주요 원인인지 혹은 그 결과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수준의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 진단에 부합하는 수준의 우울증에도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향후 우울증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해 측정하지 않았다. 메타지각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각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불안을 느끼

는 사회불안과 같은 성격 특성과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Christensen 등(2003)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메타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를 통해 메타지각과 사회불안,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지각과 친구지각을 성격적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CAQ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포괄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메타지각 전반을 아우른다고 볼 수는 없다. 친구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과 별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안 좋게 평가했을지라도, 업무능력 등과 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향후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이용하여 메타지각의 왜곡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정태연, 김종대 (2004). 가상공간에서의 대인지각: 면대면 조건과의 비교 및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1), 1-30.
- 정태연 (2006). 지각자간 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경변인의 탐색. *인문학논총*, 11(2), 199-214.
- 최인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情),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London: Penguin.
- Beck, A. T. (1991). Cognitive therapy: A 30-year retro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6(4), 368-375.
- Beck, A. T., Rush, A. J., Shaw, B.,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 Bellew, M., & Hill, A. B. (1990). Negative recall bias as a predictor of susceptibility to induced depressive m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5), 471-480.
- Block, J. (2008). *The Q-sort in character appraisal: Encoding subjective impressions of persons quantitativel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utler, A. C., Chapman, J. E., Forman, E. M., & Beck, A. T. (2006). The empirical statu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 review of meta-analys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1), 17-31.
- Carlson, E. N., Vazire, S., & Furr, R. M. (2010). Do we know the first impressions we make? Evidence for idiographic meta-accuracy and calibration of first impress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94-98.
- Carlson, E. N., Vazire, S., & Furr, R. M. (2011). Meta-insight: Do people really know how others see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4), 831-846.
- Chan, C. M., & Tsoi, M. M. (1984). The BDI and stimulus determinants of cognitive-related depress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5), 501-507.
- Christensen, P. N., Stein, M. B., & Means-Christensen, A. (2003). Social anxiety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model

-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1), 1355-1371.
- Cole, D. A., Martin, J. M., Peeke, L. A., Seroczynski, A. D., & Fier, J. (1999). Children's over and underestimation of academic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differences, depression, and anxiety. *Child Development*, 70, 459-473.
- Cole, D. A.,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 Hoffman, K. (1998). Are cognitive errors of underestimation predictive or reflective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481-496.
- Cole, D. A., Martin, J. M., Powers, B., & Truglio, R. (1996). Modeling causal relations between academic and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A multitrait-multimethod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2), 258-270.
- Colvin, C. R. (1993). "Judgable" people: Personality, behavior, and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61-873.
- Colvin, C.,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152-1162.
- Donnelly, J. (1984). Cultural relativism and universal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6(4), 400-419.
- Dunbar, G. C., & Lishman, W. A. (1984). Depression, recognition-memory and hedonic tone: A signal detection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4(4), 376-382.
- Ernst, D. (1985). *Beck's cognitive theory of depression: A status repor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Försterling, F., & Binser, M. J. (2002). Depression, school performance, and the veridicality of perceived grades and causal attribu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0), 1441-1449.
- Gara, M. A., Woolfolk, R. L., Cohen, B. D., Goldston, R. B., Allen, L. A., & Novalany, J. (1993). Perception of self and other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93-100.
- Gotlib, I. H., & Cane, D. B. (1987). Construct accessibility and clinical dep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3), 199-204.
- Gotlib, I. H., & McCann, C. D. (1984). Construct accessibility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2), 427-439.
- Gundlach, M., Zivnuska, S., & Stoner, J. (2006).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team performance through an integr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social relations model. *Human Relations*, 59(12), 1603-1632.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06.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enny, D. A., & DePaulo, B. M. (1993). Do people know how others view them?: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ccount. *Psychological Bulletin*, 114, 145-161.
- King, C. A., Naylor, M. W., Sega, H. G., Evans, T., & Shain, B. N. (1933). Global self-worth, specific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4), 745-752.

- Kleinman, A. M. (1977). Depression, somatization and the "new cross-cultural psychiatry." *Social Science & Medicine*, 11(1), 3-9.
- Kovacs, M., & Beck, A. T. (1978). Maladaptive cognitive structures in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5), 525-533.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2), 203-21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Grath, E. P., & Repetti, R. L. (2002).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self-perceptions, and cognitive distortions about the self.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1), 77-87.
- Oltmanns, T. F., Gleason, M. E., Klonsky, E. D., & Turkheimer, E. (2005). Meta-perception for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Do we know when others think that we are difficul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4), 739-751.
- Park, S. W., & Colvin, C. R. (2014). Narcissism and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friends' percept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82, 278-28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iegel, S. J., & Alloy, L. B.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s and consequences of depressive-significant other relationships: A naturalistic study of college roomm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4), 361-373.
- Singer, K. (1975). Depressive disorders from a transcultural perspective. *Social Science & Medicine*, 9(6), 289-301.
- Strack, S., & Coyne, J. C. (1983). Social confirmation of dysphoria: Shared and private reactions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 798-806.
- Strunk, D. R., & Adler, A. D. (2009). Cognitive biases in three prediction tasks: A test of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1), 34-40.
- Tafarodi, R. W., & Smith, A. J. (2001).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depressive sensitivity to life events: The case of Malaysian sojou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1), 73-88.
- Tanaka, N., Uji, M., Hiramura, H., Chen, Z., Shikai, N., & Kitamura, T. (2006). Cognitive patterns and depression: Study of a Japanese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0(3), 358-364.
- Vazire, S. (2006). Informant reports: A cheap, fast, and easy method for personality assess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472-481.
- Weissman, M. M., Bland, R. C., Canino, G. J., Faravelli, C., Greenwald, S., Hwu, H. G., ... & Lépine, J. P. (1996). Cross-national epidemiology of majo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4), 293-299.
-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Allen, L. A., & Polino, M.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108-1120.

1 차원고접수 : 2016. 05. 30.

수정원고접수 : 2016. 10. 07.

최종게재결정 : 2017. 07. 28.

Negative Distortion in Meta-Perception and Depression

Koun Jung

Minsu Cho

Sun W. Park

Korea University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has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cognitive distortion, suggesting that having distorted perceptions relative to reality is related to depression. In the present research, we examined whether negatively distorted meta-perceptions of own personality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Meta-perception is one form of person perception regarding how people believe others see the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ly distorted meta-perception and depression by comparing participants' meta-ratings of their own personality to their friends' ratings of them. Data for this study included 131 Korean and 77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to assess meta-perception of their personality and depression. Participants' friends responded to the same questionnaire to describe the participants' personality. In both samples, negatively distorted meta-percep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This negative relation was not moderated by cultu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depression, meta-perception, distorted perception, cognitive approach